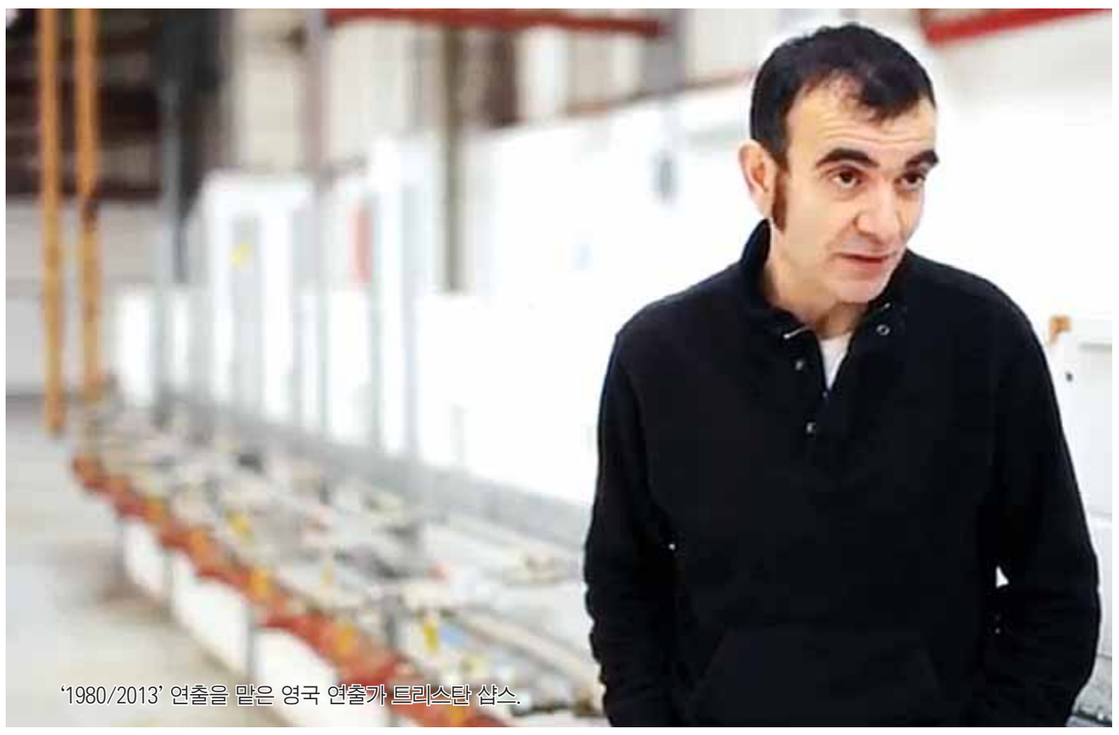
아시아예술극장 장소특정형 공연 '1980/2013' 韓·英·日 공동제작



'1980/2013' 연출을 맡은 영국 연출가 트리스탄 샵스.

5·18 배경으로 민주화를 이야기한다

옛 광주여고·일본 고치현립미술관 등 4곳서 공연
지역예술인 포함 4월부터 오디션 진행… 9월 초연

혁명과 민주화 투쟁의 역사는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는다. 1980년 5월 광주가 그렇듯, 불의에 항거했던 저항의 움직임은 세계 각국의 역사를 떠받치는 힘이다. 최근 아랍과 중동,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된 시민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물결이 이를 잘 증명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들어서는 아시아예술극장이 제작하는 '1980/2013'은 5·18 광주 항쟁에서 영감을 받아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민주화의 보편적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품이다. 광주가 지닌 역사성, 지역성, 공간성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 세계 각국의 관객과 소통하는 데 의미를 두고 추진 중이다.

한국, 영국, 일본 3개국이 공동제작하는 '1980/2013'은 장소특정형 공연으로 만들어진다. 장소특정형 공연은 특별한 무대 없이 관람객들이 아티스트를 따라 장소를 이동하며 작품을 관람하는 공연 형태를 말한다.

공연이 펼쳐지는 장소는 모두 네 곳이다. 우선 광주공연(9월3일~15일)은 광주시 동구 장동 옛 광주여고 자리에서 펼쳐진다. 이어 일본 고치현립미술관(11월2일~9일)과 일본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타테마치가 쇼핑몰(11월29일~12월8일)이 공연 장소로 낙점됐다.

관객들은 각각의 장소를 여행하듯이 다니며, 자신들 주위에서 지속적으로 변하는 세상을 만나게 된다. 작품에는 영상과 음성 인식 기술을 포함한 새로운 첨단 기술이 포함되며 관객들은 내비게이션 기술의 도움을 받아 작품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길을 찾아 여정을 만들어가게 된다.

작품 연출자는 영국 연출가 트리스탄 샵스다. 1999년 창단후 특정 공간 연극(Site-specific Theatre) 작업을 하고 있는 '드림싱크스피커'(Dreamthinkspeak) 예술감독인 트리스탄 샵스는 세익스피어, 단테, 안톤체홉 등의 고전 작품 텍스트를 시각적 스토리텔링으로 보여주는 작품을 만들고 있다. 공연장이 아닌 공공건물, 백화점, 대형 창고 등 특정 공간에서 관객들을 만나는 그의 작품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작품은 지난 2011년 광주의 공간과 이야기에 대한 리서치 작업으로 출발했고 지난해 기술팀과 연출가의 협업을 통해 네비게이션 활용 등에 대한 기술적인 점검을 마쳤다.

제작진은 당초 5월 현장인 전남도청과 상무관을 공연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아 대신 다양한 이야기 구조를 풀어가기 적합하다고 판단한 옛 광주여고를 공연장소로 확정했다.

이번 작품에 출연할 배우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다. 서울(4월7일~9일)과 광주(4월14일~16일), 일본에서 오디션을 진행한다. 제작진은 즉흥에 능숙하며 컨템퍼러리 무용, 전통무용, 신체연극 등 움직임이 좋은 공연자와 노래를 포함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배우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제작을 맡고 있는 아시아나우 김상미 PD는 "이번에 선보이게 될 '1980/2013'은 광주라는 지역적 특색과 민주항쟁이라는 보편적 이야기가 어우러진 새로운 스타일의 작품"이라며 "특히 광주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는 만큼 광주 배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협업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디션 정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홈페이지(www.asiaculturecit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765-658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문 교육시설 만들어 차세대 예술인 육성해야"

아문단, '광주에서 시작하는 공연에 관한 담화' 한목소리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에 들어서게 될 예술극장과 광주지역 공연예술계가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광주에 '차세대 연극 스튜디오'와 같은 연극인 교육시설을 만들어 전문 예술인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 8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주최로 '예술극장 통'에서 열린 '광주에서 시작하는 공연에 관한 담화'에 참석한 문화예술 분야 교수, 연극 기획자 등을 비롯한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이 같은 내용에 공감했다.

이병훈 국립극단 차세대 연극 스튜디오 소장은 "최근 대학교가 양성하는 연극인들은 순수성이 결여돼 있어 광주의 지역색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장기적으로 예술극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연극인 전문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공연도 순수예술을 지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이 소장이 국립극단에서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차세대 연극 스튜디오'는 연극 현장과의 연계 속에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첫 작품 '손님'은 월간지 한국연극이 뽑은 '2012 베스트 7 연극'에 선정되기도 했다.

유재원 교수도 "소비자에 맞춰 예술을 준비하거나 흥행을 좇는 공연제작보다는 순수성에 깊이를 둔 공연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8일 '예술극장 통'에서 열린 '광주에서 시작하는 공연에 관한 담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제공〉

문화전당에 담기게 되는 '100대 아시아 스토리 자원발굴' 사업을 진행해온 방현석 교수는 "100대 아시아 스토리 선정 작업 자체는 아시아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선정된 스토리는 조만간 '100개의 아시아'란 제목의 책으로 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담화는 김길수 순천대 교수 사회로 그리스 전문가인 유재원 한국외대 교수, 방현석 중앙대 교수, 이병훈 소장, 최도인 메타기획 전략기획본부장, 원광연 광주연극협회 부회장 등의 사례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길태 교수는 "지역 예술인, 전문가들이 모여 문화전당 예술극장의 성공을 위한 방안들을 토론한 이번 담화를 계기로 예술극장의 성공이라는 씨앗이 발아되기 시작했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인연서설'

영남 원로문인화가 신세규 초대전
31일까지 신양파크호텔 갤러리S

신양파크호텔 1층 로비에 위치한 갤러리S는 오는 31일까지 영남지역 원로 문인화가 소천 신세규 초대전 '인연서설'을 연다.

경남 출신으로 올해 84세를 맞이한 소천 신세규 화백은 그동안 영남지역 수묵화의 맥을 이어왔다.

신화백은 이번 전시에서 그의 영원한 작품 소재인 왕죽 수묵화와 진귀한 옛 그릇과 화초 등을 소재로 한 정물화 성격의 기명절지도(器皿折枝圖) 등 25점을 선보인다.

'죽(竹)'

특히 민화에서 볼 수 있는 화풍과 입체화법이 돋보이는 그림들이 화폭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신세규 화백은 국내는 물론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수차례의 개인전을 열었다.

한국미술협회 고문, 한국문인화대전 심사위원장, 부산 비엔날레 공모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구혜영·손영모·이매리·이조흠·비빔밥팀

문화재단, 미디어큐브338 전시 작가 선정

광주문화재단 미디어특화 전시장인 미디어큐브338 전시 공모 결과 구혜영, 손영모, 이매리, 이조흠(이상 4건 개인), 비빔밥(1건 단체) 등 총 5건이 선정됐다.

구혜영, 손영모는 이 지역에서 자주 접하지 못하는 영상 퍼포먼스와 내러티브 영화 문법의 영상 작업 등 독창적인 작업세계를 인정 받아 선정됐다. 이조흠과 이매리는 사진과 조각, 영상 작업 등 다양한 매체를 유기적으로 공존시킨 공간 연출 계획력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비빔밥'팀은 지난해 광주비엔날레 전시를 통해 첫 선을 보인 융합그룹으로, 무등산의 여러 기운을 찾고 재구성해서 새로운 의미 공간을 만들고 관객들이 공간 속으로 들어와서 직접 사유하고 교감 할 수 있도록 작품을 구성한 기획력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전시는 4월부터 12월 말까지 광주문화재단 1층 미디어큐브338 전시장에서 열린다. 062-670-7493.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